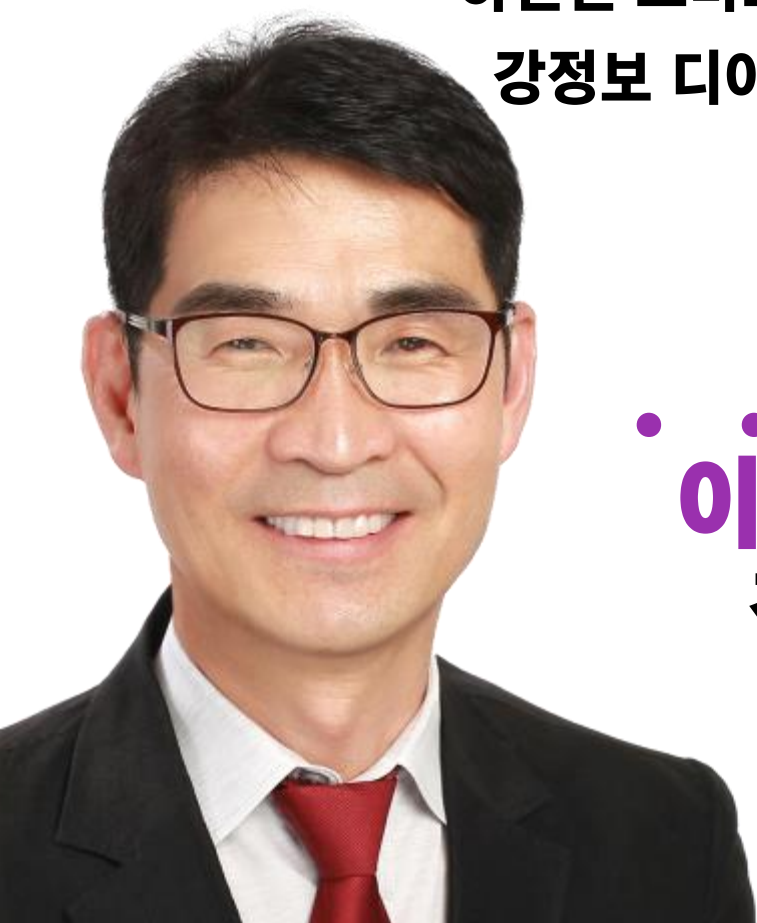


무소속 7

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!!

하빈면 스마트팜 단지로 청년농부 육성
강정보 디아크를 물과학 체험관으로...



• • •
이웃사람 설오열은
곁에 있겠습니다.

7 설오열

후보자 정보공개자료

1. 인적사항

기호	소속정당명	후보자성명	성별	생년월일(세)	직업	학력	경력
7	무소속	설오열	남	1966. 07. 13. (59세)	제조업 다원팜대표	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(경제학사)	(전)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사무처장 (전) 제20대 대통령선거 안철수후보 대구달성군 지역 선대위원장

2. 재산상황 및 병역상황

재산상황 (천원)					병역사항		
계	후보자	배우자	직계존속	직계비속	후보자	배우자	18세 이상 직계비속
77,398	21,280	56,118	0	차남 : 없음	육군 병장(만기전역)		-장남:육군 병장(만기전역)

3. 세금납부,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

최근 5년간 소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(천원)				후보자 전과기록
구분	납세액	체납 내역		
		체납액누계	현 체납액	
계	995	0	0	해당 없음
후보자	952	0	0	
배우자	43	0	0	
직계존속	0	0	0	
직계비속	0	0	0	

4. 소명서



물과 꽃, 농업과 사람이 모여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!



1 하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! 정부정책으로 청년농부 육성!



- 스마트팜 단지의 장점!**
- ☞ 정부 정책 연계로 시설비 부담 DOWN!
 - ☞ 대구시 스마트농장 설치로 난방비 해결!
 - ☞ 온·최장년 스마트농장 일자리 육성! (농촌형 육성회사 정기원 채용 → 각 농가 파견)
 - ☞ 인력 수급 용이! 장년층 일자리 창출!
 - ☞ 가까운 농산물 경매장! 물류비 절감!
 - ☞ 하빈면이 스마트팜 최적지!

2 해랑교~세천교 7km 꽃피는 강변 조성!



- 세계적 꽃길~ 걷고 싶은 강변!
- 산책
 - 자전거
 - 사진명소
 - 지역축제

3 강정보 디아크, '물 과학 체험도시'로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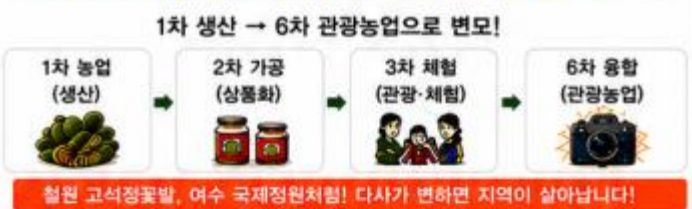


모든 세대를 위한 물 과학 실험 공간!

- 수소·산소 분해 실험
- 흐르는 강물로 발전 실험
- 다양한 물 과학 실험

초·중·고·대학생 및 방문객 누구나 참여하는 미래 과학자 양성소!

4 달천리·박곡리, 6차 관광농업 명소로!



5 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!

서재·세천·박곡·달천·방천 주민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!

주민사업으로 꽃피웁시다!

주민이 주도! 주민이 탄합! 주민이 주인!

- 주민회의
- 주민참여
- 주민자치사업
-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

동해(꽃피는 강변)와 넷째(관광농업) 사업을 힐원 고석정꽃밭처럼 주민사업으로 추진!

6 배산임수의 땅! 서재·세천 우리가 명당으로 만들자!

자연이 주는 최고의 자리, 관광과 경제가 살아납니다!

- 관광객 증가!
- 속박수요 발생!
- 자산가치 상승!

우리 아파트 민방을 위중, 에어비엔비 등 활용!

배산임수의 기운으로 서재가 천하제일 명당이 됩니다!

7 스마트팜 단지의 문제점, 이렇게 해결합니다!

- 시설비 부담 해결: 정부 주도, 청년농부 육성 정책 연계로 시설비 절감!
- + 난방비 해결 +: 대구시 스마트농장 설치로 겨울철 난방비 해결!
- 일찍문제해결&장년층 일자리 창출: 온·최장년 스마트농장 일자리 육성으로 → 농촌형 육성회사 정기원 채용 → 추가 파견! (아파트 관리소 인력파견 구조)
- 물류·경매 최적지·: 가까운 농산물 경매장! 물류 운송거리 짧아 스마트팜 최적지!

8 주민이 원하는 사업!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!

- 군위공향, 행정통합처럼 빈대가 강한 사업은 성사가 어렵습니다.
- 하지만,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지원도 쉽고 성과도 따릅니다!
- 담의 정책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사업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!

달천으로 추진하면 빈대에 부딪힐 어려움~

주민이 참여하면 지원이 활발하고 성과도 좋습니다!

주민 스스로 만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!

물과 꽃, 농업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
행복한 다사!

미래로 가는 **서재읍** 만들기!



보통사람이 보통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

보통사람이 일꾼이 돼야 이웃의 이야기를 듣습니다.
잘나지 않았지만,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.
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달성군을 만들겠습니다.



더 듣겠습니다.
하겠습니다.



7 설오열